

## 大學教授의 職業的 特性

—학문과 교육의 ‘人間的 意味연관’—

李 光 周

(全州大 歷史教育科)

## 1. 머리말

대학교수의 직업적 특성에 관한 논의는 비단 그의 전문적 기능에 대한 물음뿐만 아니라 教授의 本質에 관한 문제와 대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大學의 本質 문제와도 깊이 관련된다. 왜냐하면 대학을 떠난 교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의 직분으로서 일반적으로 학문研究와 학생에 대한 教育·指導를 지칭한다. 학문 연구와 교육·지도는 바로 교수의 직분인 동시에 대학의 본질에 속하며 그러므로써 교수와 대학의 存在價値의 근원을 이룬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학문 연구와 학생의 교육·지도가 결코 도식적으로 나누어지는 자기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연구의 내용과 성격이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변화하듯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필연적으로 다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들은 교수의 첫째 직분이라고 할 학문 연구의 문제에 관해 먼저 생각해 보자.

## 2. 教授 職分으로서의 學問 研究

교수와 대학의 본질은 우선 학문 연구에 있

다. 학문 연구를 통해 교수는 그의 專門性을 획득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능한다. 그러나 지식과 학문을 전승하고 창출하며 응용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학문 연구자로서의 知的·文化的 행위는 결코 대학교수에 국한된 것도 아니며 대학만이 그 터전인 것도 아니다. 오늘날 고도 산업화 시대에 있어 우리들은 국가나 기업 혹은 특정 단체에 의해 전립되고 관리되는 많은 연구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 대학이 지식과 학문 및 그의 연구와 교수 수단을 독점한 시대는 끝난 지 오래이며 대학이 아닌 많은 특수 연구 기관이 대학과 같은 수준의, 때로는 그 이상의 연구 업적을 올리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는 다양한 知的 專門職 (profession)의 사회이며 학식이 쉽게 취득될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1970년 전후 미국과 유럽 및 일본 등 고도 선진산업·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그 방대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進運에 발맞추지 못하는 대학의 역기능에 異議를 제기하며 대학과 교수의 無用論이 제법 논의되었다.

대학과 교수는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이러한 논의는 사실 현대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었다. 유럽의 大學史上 16~18 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대학의 침체기로 기록되고 있다. 그 시기에 있어 유럽 각국에서는 아카데미가 대학을 대신하여 학문 연구의 센터가 되었기에 제1급의 학자들은 대학을 외면하고 아카데미에 모였다. 이러한 현상은 19 세기에까지 유럽 지식사회에 있어 大學 無用 논의를 진지하게 되풀이하게 하였다. 그 원인으로서 면학에 뜻이 없는 대다수 학생들의 일탈된 생활태도, 교수들의 낮은 학문적 자질이 지적되었다. 독일을 제외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19 세기 중엽까지도 제1급의 사상가·학자들은 대체로 대학과 관련이 없었던 人士들로서 독창적인 업적은 대개 대학 밖에서 이루어졌다. 아담 스미스가 “대학은 나를 게으르게 만든다”라고 하며 모교인 글라스코의 대학 강단을 떠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의 불후의 명저인 「국부론」도 그가 대학을 떠난 뒤의 저술이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도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대학은 오히려 새로운 사상, 독창적 업적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등 보수적 입장을 전통적으로 취하여 왔다.

대학이 스콜라 사상의 본거지였거나(프랑스), 지배계층의 인간 교양의 터전이던(영국) 지난 날을 청산하고 학문 연구라는 본연의 자리를 되찾은 것은 1810년에 창건된 베를린대학을 통해서였다. 베를린대학 창립의 지도 이념인 ‘학문의 자유(akademische Freiheit)’는 학문 연구와 교육의 근거지로서의 근대 대학의 특성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또한 근대적 教授의 직분을 규정하였으니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 과정을 생각해 보자.

### 3. ‘學問을 통한 教育’과 教授의 位相

베를린대학은 국가와 이상주의 사상가들의 합작품으로 일컬어진다. 그 창립의 구상과 실현에는 피히테, 쉐라이에르막허, 셸링크, 훔볼트 등 당대의 대표적 사상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 의해 많은 탁월한 大學論이 나왔으며 그것들은 또한 당연히 學問論과 教授論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학 논의는 베를린대학의 성립 직전까지 프로이센의 문교 최고 책임

자로서 그 산파역을 맡았던 훔볼트에 의해 집약되고 베를린대학 창건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일명 ‘훔볼트의 이념’으로도 일컬어지는 ‘학문의 자유’ 이념은 학문과 교수 및 대학에 대한 이상주의 철학의 견해와 입장의 반영이며 그것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상주의 철학자들에 의하면, 대학은 학습(Lernen)의 장이 아니라 인식(Erkennen)의 터전이다. 그리하여 교수들에게는 단순한 지식의 전승이 아닌 지식의 모든 영역과 관련에 관한 엔사이클로피디어적인 안목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으로써 교수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학문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러 학문 간의 有機的 관련과 그것을 통한 사물의 百科全書的이며 보다 본질적인 인식은 그들이 이상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철학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확신되었다. 대학이란 그들에 있어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哲學的 大學이다. 그러므로 교수에게는 그의 전공에 관계없이—전공에 앞서서—전체 학문으로서의 철학에 관한 소양과 철학적 인식 태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엔사이클로피디어적이며 철학적인 인식이야말로 특수 연구소와는 달리 여러 학문의 개별적이며 보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들의 직분으로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오늘날 학문 연구는 교수에게만 주어진 전문 영역은 아니다. 단순한 연구자의 전문성과 구별되는 교수 직분의 특성은 그가 얼마만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사물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을 지니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을 얼마만큼 전체적이며 보편적인 것과의 관련에서 인식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단순한 전문성에 머물 수 없는 교수의 이러한 특성은 대학의 본질과 관련되며 그가 朝夕으로 대하는 젊은 지성, 즉 학생의 존재와 관련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교수 직분의 특성은 교수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근대적인 지식인으로 화하게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거니와 이제 철학적 인식이라는 교수의 특성과 관련하여 형성된 道德的 教授像에 관해 살펴보자.

베를린대학의 이념을 내세운 이상주의 사상가들에 의하면, 학문은 통속적인 지식과 구별되는純粹認識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학문에 종사하는 학자—교수는 변호사·의사·기술자 등의 단순한 기능인과는 구별되며, 후자가 현실 세계에 안주하는 데 비하여 학자—교수는 理想의 王國의 주인이다. 교수들에 의해 전달되는 학문은 단순한 기술적·기능적 지식이 아니라 그 자체에 일종의 정신 순화적 도덕성을 지닌다.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關係가 지식을 주고 받는 것 이상의 人格적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인식도 철학을 기본으로 하며 철학에 의해 뒷받침되는 學問觀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강의실과 교수의 연구실은 아카데미나 연구소의 그것과는 달리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장이다. 학문과 교수의 이념적 위상을 가장 잘 말해 주는 것으로 훔볼트의 이른바 ‘학문을 통한 교양(Bildung durch Wissenschaft)’이라는 사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훔볼트는 역설하였다. “교양은……가장 깊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학문 연구 및 학문을 知的·道德的인 도야를 위해……헌신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성취된다.” 왜냐하면 철학과 깊이 관련된 순수 학문의 탐구는 필연적으로 인간 형성을 위한 교양(교육)을 촉진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학문이란 그에 헌신하는 탐구자로 하여금 인간답게 하는 淳化力을 지니게 하며, 그럼으로써 그에 종사하는 교수와 대학은 도덕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독일풍의 학문관은 우리의 유교적 전통 사회에서도 비슷하였으니 학식은 단순한 기능적 의미를 넘어서 敎學으로서 이해되었다. 그리하여 독서하는 士大夫에게는 도덕적 선비정신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교수는 학생의 존재를 의식하기에 앞서 학문 탐구자로서의 직분 때문에 도덕성을 지니며 사회 또한 교수들과 그 공동체인 대학을 도덕적 존재 내지 그 담당자로서 인식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생겨나고 내면에 뿌리를 내리는 학문만이 인격을 형성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인격과 행위이다. —이렇듯 敎養이라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

을 위해 헌신하는 교수에게는 절대적 자유, 즉 ‘학문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했다.

훔볼트는 학자—교수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의 ‘고독(Einsamkeit)’을 강조하였다. 교수의 고독을 위해 피히테나 셸링은 사회로부터의 학자—교수의 자발적인 ‘격리’를 주장하였거니와 훔볼트는 대학 내의 ‘學務(Lehrerschaft)’로부터의 교수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학에 있어 교수는 학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강의 자체도 교수를 위해 존재한다. 교수 요목이라든가 시험과 같은 업무는 물론 강의 자체도 교수나 대학에 있어서는 전혀 부차적인 것이다.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전적으로 고독하게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가 존재하며 또 존재하여야 하며,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학자가……작은 공동체 속에서……자기와 학문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든 업무로부터 해방된 ‘고독’에 뒷받침된 교수의 ‘학습의 자유(Lernfreiheit)’는 쉘스키가 지적하였듯이 독일의 學者像에 특징적인 ‘수도사적’ 禁欲 엘리트의 면모가 엿보이는 한편, 심미적 일면이 부각된다고 할 것이다. 고대 그리이스의 아카데미아를 이상으로 흠모하였던 이 귀족적 인문주의자에 있어 학문 연구는 개인의 閑暇와 고독의 문제, 즉 ‘놀이’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서 결코 조직된 업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은 훔볼트의 ‘고독과 자유’는 개인의 내면성과 깊이 관련된 연구실의 상아탑 세계의 이념이었다. 그러면 열린 세계에 있어 그 위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 4. 産業社會에서의

##### 人間的 意味聯關의 追求

현대의 고도 산업화 사회는 대학의 모습을 일신하였다. 지극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리고 그 칠줄 모르는 고도 기술 산업사회의 발전에 대응하고 지난 날의 엘리트 교육을 대신하는 高等敎育의 대중화 현상에 발맞추어 등장한 오늘날의 다원적 대학(multiversity)은 앞에서 언급한 베를린대학으로 상징되는 학문을 위한 학자의 공동체로서의 근대적 대학과는 그 성격을 극히 달

리한다.

다원적 대학의 전형은 10만 명 이상의 학생을 거느리고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직원의 방대한 숫자나 그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갖춘 캘리포니아 대학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동 대학의 특징은 그 맘모스적 규모에 있다기보다도 산업사회의 의식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253종의 교과목을 지닌 工學系에서 뚜렷하다. 그중에는 드라이 크리닝 공학도 있다. 그리고 218종이나 되는 敎育學 중에는 자동차 운전, 안전 교육 등의 과목도 포함된다. 코넬 대학의 창설자인 코넬은 “어느 누구도 어떤 학문 분야의 교육이라도 찾을 수 있는 시설과 기관을 나는 만들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거니와 ‘만능 교과목의 이념(the idea of <all purpose> curriculum)’이 이제 미국의 복합 대학에 널리 받아들여져 오늘날 교과목 수는 그 명칭만도 1970년대 초에 2,599종류에 이른다고 한다. 150년 전에 피히테가 철학만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철학대학을 구상한 것과는 실로 천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대학의 면모는 일신되었다. 고도 산업 기술의 개발과 연구 및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공학 중심의 대학 기능의 변화는 당연히 학문과 교수의 위상에 큰 변혁을 초래하였다. 학문은 앵글로-색슨계의 나라에서는 산업 사회의 도래에 앞서 교양과 결부되고 철학적 색채가 짙었던 독일의 ‘학문(Wissenschaft)’과는 달리 자연 과학과 경험과학의 성격이 짙었거니와, 산업화의 시대적 풍조 속에서 더욱더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science’가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교수에게는 철학적 인식이 아니라 ‘嚴正科學’에 종사하는 과학자로서의 과학적 자질, 즉 合理的 認識이 요구되었다. ‘철학의 시대’의 종말과 더불어 독일적인 학문의 이념도 중저부름 찍었으니 교수의 직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관념적이며 추상적으로써 현실에 어두웠던 敎授像은 아나크로니즘적인 것이 되었다. 敎養讀書人(Mandarin)에 대신한 테크노크라트 시대에 있어 교수들도 그의 전공에 관계없이 기술적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교수 연구실에서 들려오는 것은 학생과의

소크라테스적 대화가 아니라 컴퓨터 소리이다.

오늘날의 고등교육은 대중화 단계를 넘어서 ‘보편적인 고등교육’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대학생 수가 적령 인구의 50%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된 현실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受惠이기보다도 오히려 義務가 되고, 교육의 목적 또한 고도 산업사회의 대중화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대중화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 몰아넣는 오늘날에 있어 대학교수와 그가 지닌 전문성을 각양각색의 수 많은 연구 기관의 종사자들과 구별짓는, 그리고 그의 고유한 전문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대학이 단순히 학술 연구와 교육 기관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외부 사회에서의 기술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조언에 참가하고, 일반 공중에 대한 학술적·교양적·사교적 심지어 오락과 스포츠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각종 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시를 개최하는 등 캠퍼스의 경계가 그것을 둘러싼 사회에 의해 이미 제거된 지 오래된 오늘날 교수는 단독적인 학문 연구자일 수 없게 되었다. 때로는 공동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 행정관청이나 기업과 교섭하는 유능한 사교성을 지녀야 하며, 대학의 권력 기구에 대해서는 강한 정치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동창회를 비롯한 각종 학의 모임에 참가해야 하고 매스컴에서는 스포크스맨 놀이도 하고 학생에게는 벗이 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좋은 동료가 되고 문하생의 취직을 위해서는 실득력이 있는 외교관이 되어야 하는 등등의 얼굴을 지녀야 할 오늘날의 敎授像. 그들의 고유한 전문성을 우리들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은 대체로 기존 체제의 상황을 반영하며 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에서 그 목적을 설정한다. 오늘날 교수의 직업적 특성도 당연히 고도 기술산업 사회의 상황이라는 체제의 성격,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에 의해 규제되기 마련이다.

산업 대중 사회에 있어서는 교육 또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수의 독자적 전문직이 아니라고 지적되고 있다. 학술 연구와 교육의 기능까지도

각종 기관과 분담하게 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대학과 교수의 존재 가치와 아이덴티티, 그 독자적인 직분을 우리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들은 철학 중심의 베를린대학이 여러 학문 연구의 센터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을 통한 교양’의 이념을 통해 지적으로 성숙된 교양시민 계층을 창출하고 독일의 근대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몇 세기에 걸쳐 팽배하였던 大學無用論을 무산시켰던 역사적 사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대학은 전문적 학술이나 전문직을 양성하는 단순한 연구의 장도 교육의 터전도 아니다. 대학에서는 다른 연구 기관과는 달리 순수 연구와 응용 연구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그 모순의 규명 및 통합이 동일한 과제가 된다. 그리고 학술 연구와 교양교육을 동일한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것이야말로 대학만의 독자적 기능이며 교수 고유의 직분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分校 평의회가 작성한 「버클리의 교육—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Education at Berkely, Report of the Select Committee on Education, 1966)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대학교수가 연구 및 교육의 직분과 관련한 위상과 그 당면 과제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버클리의 교육특별위원회는 ‘인간적인 학습과 과학적 연구의 전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 방법’을 찾고 ‘오늘날 고려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변혁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광범위한 학원 공동체에 전달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지식의 증대와 창출, 전달 양식의 변화, 대학 인구의 팽창, 사회적 기능의 변화, 새로운 학생 세대의 대두 등과 관련된 대학과 교수 역할의 변화가 크게 개제된다. 교수는 이제 교육 및 연구와의 관계에서 교수 내용·교수법·사제관계·대학의 관리 경영의 변혁에 의해 그의 직분과 본질에 관한 검증 을 요구받는다 고 버클리의 보고서는 지적한다.

동 보고서는 버클리가 오늘날 지향하는 이념은 고도 과학 기술의 전문화·분화, 사회 경제의 엄청난 지각 변동의 시대에 있어 교육의 갖

가지 요소를 보다 잘 조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은 결코 학생과 학과를 규칙의 테두리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풍부한 기회, 관대한 지도, 많은 실험의 여지를 주는 것이다. 전문가 양산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은 편협과 할거주의의 위협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은 학생에게 넓은 지성과 특수한 관심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거대한 학원의 비인격성, ‘소의감’에 대해 대학과 교수는 그 치유에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의 일반교육을 위한 가장 큰 공식의 책임’이 긴급히 요청된다. 그리고 이어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연구(내지 창조성)야말로 버클리의 특징이다……우리들은 교육과 연구의 상호 축진이 보다 잘 실현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들의 理想은 연구의 흥분과 권위에 가득 찬 교육이며 교육의 인간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이다. 우리들의 理想的 교수란 초오서의 書記와도 같이 기쁨으로써 배우고 기쁨으로써 가르치는 인물이다.”

“교육과 연구의 긴밀한 상호 침투에 의해 버클리에 특별한 성격이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우리들의 다원적인 교과과정에 궁극적인 통일과 일관성이 주어지고 또 우리들의 교수진에 명확한 역할 규정이 주어져야 한다.” “버클리의 교육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양식인 것이다. 우리들은 버클리에 대해 학자가 아닌 교사라는 이념을 거부한다……학식이야말로 훌륭한 교육을 추진한다……그런데 학식의 필요의 근거를 이루는 것은 인간적 요구뿐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아닌 연구자를 교수진으로 맞이할 여지는 없다. ‘교육으로부터 유리된’ 학자에게는 연구소나 기업에 적당한 자리가 있다. 그러나 대학의 이상은 학문이 교육에 봉사하는 이상이어야 한다……이 핵심적인 봉사 행위—교육에 의해 우리들은 우리들의 학문이 인간적인 의미연관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직접 검증하고 우리들 자신이 젊은 세대의 고유한 노력의 목표가 되게끔 향상하는 것이다”(이상 방점은 필자가 붙임).

단순한 연구자도 단순한 교육자도 아닌 교수의 직분으로서 베클리의 보고서는 학문이 교육에 봉사하는 이상을 지적하고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교수는 끊임없이 그 자신의 학문이 '인간적인 의미연관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5. 맺음말

베클리의 보고서는 그 序章을 '베클리의 철학'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베클리의 이념을 구상한 인사들과 1800년 전후에 베를린대학의 창건을 구상한 이상주의적 철학자들의 대학 이념 사이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들을 둘러싼 사회는 150년이라는 세월 이상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과 대학과

교수를 둘러싼 상황의 거대한 변혁에도 불구하고 그 本質과 職分의 連續性은 어디에서 유래되는 것일까? 그것은 학문과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 理想의 항구적이며 보편적 성격에서 오는 것일까?

지난 날 19세기의 교수들은 철학적 인식 속에서 자기 학문의 '인간적인 의미연관'을 찾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교수들은 철학적 통찰과 더불어 사회적·역사적 인식을 통해 학문의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의미연관을 찾아야 한다. 때로는 이른바 '사회 봉사'도 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고전적인 교수상과 대비하여 한탄할 필요가 없다. '사회 봉사'가 아무리 통속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人間的이며 社會的인 意味聯關과 무관하지 않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